BUILD — 검증

베네룩스 패키지 대비 검증

같은 도시 패키지와 1:1 · 변수 통제 대비

READ·BUILD · KIM HYUNGJUN · 포트폴리오 심화자료 · 인과는 주장하지 않음

"내 도시를 그대로 도는 패키지에, 내 FIT를 같은 잣대로 통과시킨다"

> **한 줄 정의**: 내가 실제로 도는 서유럽 도시를 **9개 공유**하는 하나투어 상품(`베네룩스 3국+독일 9일`)을 공개 상품페이지로 추출해, 내 유럽 FIT 전시물(`유럽FIT_설계전시물.md`)을 **같은 8개 축 + 가격 축**으로 1:1 대조한 문서. 목적은 새 역설계가 아니라, 이미 만든 FIT 전시물 **§2 대비표를 '객관적으로' 보강**하는 것 — 내 설계 강점이 자평이 아니라 *같은 땅 위에서* 확인되는지 검증한다.
>
> ⚠️ **프레이밍 (반드시 지킬 선)**
>
> 1. 내 FIT는 **개인 여행(N=1·사적)**이다. "시장 검증 상품"이 아니라 **설계 역량·철학의 증거**로만 읽는다.
> 2. 비교는 **"두 설계 사고방식"**의 대비다. "내 FIT가 더 좋은 상품"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**"더 깊은 설계 철학"**의 증거다.
> 3. **인과 주장 없음.** 내가 이 패키지 설계에 영향을 줬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는다.
> 4. **정직 > 과장.** 패키지가 진짜 쥔 카드(§5 정직 플로어)는 명확히 인정한다 — 단 그건 *콘텐츠 깊이*가 아니라 **넓이·편의·안심**이라는 다른 목적함수다.

0. 왜 이 대조가 §2를 '객관적으로' 보강하는가

FIT 전시물 §2의 대비표는 왼쪽 열이 **발칸 패키지**였다. 강력하지만 약점이 하나 있다 — **지역이 다르다**(발칸=동유럽 / 내 FIT=서유럽). 샤프한 면접관은 이렇게 칠 수 있다: *"2인 사진 여행이 단체 발칸 버스 일주보다 나은 건 당연하지, 사과와 오렌지 아닌가?"*

이 문서가 그 갭을 닫는다. 왼쪽 열을 **내 실제 도시를 9개 공유하는 패키지**로 바꾸고, 아래처럼 변수를 통제한다. 조건을 맞춘 뒤에도 내 설계 시그니처가 버티는지, 패키지의 구조적 제약이 *추정이 아니라 실제 상품 페이지에서* 문서로 확인되는지 — 그것이 이 대조의 값이다.

통제 변수	패키지	내 FIT	효과
계절	2026.08.17 출발	2026.08.16~26	일조·혼잡·날씨 조건 거의 동일 → 빛 비교가 계절로 오염 안 됨
관문	프랑크푸르트 IN/OUT	프랑크푸르트 IN/OUT	허브 선택이라는 상위 변수 제거 → 내부 설계만 남음
공유 도시	9개 (§1-4)	9개	"같은 도시를 어떻게 다르게 다루나"의 직접 대조 가능

1. 대상 패키지 요약

1-1. 상품 정체

항목	내용
상품명	베네룩스 3국(벨기에/네덜란드/룩셈부르크)+독일 9일 · **#3대미술관(크뢸러뮐러/반고흐/마우리츠하위스) #고성투어 #소도시투어**
부제 (마케팅)	*"스쳐 지나가는 여행이 아닌, 깊이 있게 즐기는 베네룩스 3국 여행"* — 이 **'깊이' 주장 자체가 §2-A·§2-B·§3의 검증 대상**이다(그리고 §2-A대로 실제론 도시별 얕고 균일하게 스쳐간다)
상품코드	EWP1042608170Z1 (하나팩2.0 · 스탠다드 · 별점 4.6 / 후기 190)
기간·항공	7박 9일 · 아시아나 직항 (OZ0541 인천 10:50→프랑크푸르트 17:40, 13h50 / OZ0542 프랑크푸르트 19:40(8/24)→인천 14:35(8/25), 11h55)
가격	**5,399,000원/인 (올인클루시브)** — 회원 즉시할인, 정가 5,599,000 · 유류할증료 785,600 포함 · 아동 5,157,330 / 유아 483,340 · 5개월 무이자 월 1,079,800 · 예약금 3일내 1인 550,000 · 마일리지 최대 48,334M
예약현황	예약 7명 / 좌석 25석 (최소출발 성인 10명)
인솔·가이드	**인솔자 동행 + 가이드=인솔자 동일** · 전 일정 개인 수신기 제공
미팅	08/17 07:50 ·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12번 출입문(N카운터앞)
구성	**NO쇼핑**(쇼핑센터 미방문) · **NO선택관광** · 전용 대형버스 · 3억원 여행자보험
숙박 분포	쾰른 1 · **암스테르담 2** · 헤이그 1 · 브뤼허 1 · 브뤼셀 1 · 룩셈부르크 1 (총 7박)

1-2. 포함 / 불포함 / 선택경비

패키지의 '안심·올인클루시브' 성격을 규정하는 층. **§4 런던 워킹투어와 정확히 반대**라 대조에 필요하다.

구분	내용
포함	[교통] 전용 차량비·**왕복항공권** / [제세금] 투어리스트텍스·유류할증료·전쟁보험료·관광진흥개발기금·현지/국내공항세 / [숙박] 숙박비 / [식사] 식사비 / [관광] **관광지 입장료** / [보험] 3억원 여행자보험 / [가이드·기사] 경비 / [인솔자] 경비
불포함	개인 여행경비(물값·자유시간 비용) / 각종 매너팁(테이블·포터·마사지)
선택경비	[교통] 항공리턴변경(문의) / [숙박] 객실 1인 사용료 1,100,000원(유럽 싱글베드)

> 항공·숙박·이동·식사·입장료·보험이 **전부 포함** = 여행자는 결정도 지불도 거의 안 한다. 이 편의·리스크 이전이 패키지의 진짜 값이다(§5 정직 플로어). §4 런던 워킹투어는 정반대로 항공·숙박·이동·점심·입장료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한다.

1-3. 일자별 골격 (전 구간 추출)

★ = 숙박. 이동은 상품 명기치(버스).

일	날짜	구간(★)	핵심 활동	식사	숙박 성격
1	8/17(월)	인천→프랑크푸르트→쾰른★	(이동) OZ0541 · 버스 2h30	중·석 기내	쾰른 4성 (옵션에 **뒤셀도르프 공항** 호텔 포함)
2	8/18(화)	쾰른→아른헴→암스테르담★	쾰른 대성당·라인 외관 / **크뢸러뮐러 미술관(반고흐)**	조 호텔·중 현지·석 현지/호텔	암스테르담 **스키폴 공항** (5개 옵션)
3	8/19(수)	암스테르담⇄잔세스칸스★	잔세스칸스 풍차 / **반고흐 미술관** / 왕궁·운하·담 광장 외관	조 호텔·중 현지·석 현지	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
4	8/20(목)	암스테르담→위트레흐트→델프트→헤이그★	**더 하르 성**(#고성투어) / 델프트 / **마우리츠하위스**·비넨호프	조 호텔·중 현지·석 현지	헤이그 4성 (힐튼 5성 옵션 1)
5	8/21(금)	헤이그→안트베르펜→브뤼허★	안트베르펜 외관 / 브뤼허 마르크트·종루·사랑의 호수	조 호텔·중 현지·석 현지	브뤼허 4성
6	8/22(토)	브뤼허→겐트→브뤼셀★	겐트 그라벤스틴·그라슬레이 / 오줌싸개·그랑 플라스	조 호텔·중 현지·석 현지	브뤼셀 **공항** (4개 옵션)
7	8/23(일)	브뤼셀→디낭→룩셈부르크★	디낭 시타델 / 아돌프 다리·노트르담·헌법광장	조 호텔·중 현지·**석 현지 또는 중국식**	룩셈부르크 (키르히베르크 업무지구)
8	8/24(월)	룩셈부르크→코헴→프랑크푸르트	코헴 모젤 외관·조망 → 공항	조 호텔·중 현지·석 기내	기내숙박
9	8/25(화)	인천 14:35 도착	(귀국)	조 기내	–

> ※ 조식은 전 일정 **호텔식**, 시그니처 코스(§2-C)는 일부 중·석식에 배치. 능동형·보트는 **전 일정 0**(운하는 육지 외관/도보만). 대성당·성·소도시 상당수가 외관/조망.
> ※ 버스 구간(확인): 2h30·(2h30+1h30)·(30+30)·(30+30+30)·(1h30+1h30)·(1h+1h)·(1h30+2h)·(1h40+2h) → **일평균 약 2.6h · 확인 합계 ~21h**. 절대치는 발칸(~5h/일·38h+)보다 낮지만, **체류 대비 이동 비율**은 높다(§3-B ④).

1-4. 도시 겹침 맵 (대조 스코프)

발칸 해체 때처럼 **스코프를 정확히 긋는다**. 겹치는 9개만 1:1 대조하고, 안 겹치는 구간은 제외·표기한다.

겹치는 9개 (1:1 대조)	패키지만 (제외·표기)	내 FIT만 (제외·표기)
프랑크푸르트 · 쾰른 · 암스테르담 · 잔세스칸스 · 안트베르펜 · 브뤼허 · 겐트 · 브뤼셀 · 룩셈부르크	아른헴 · 위트레흐트 · 델프트 · 헤이그 · 디낭 · 코헴	자른뷔르크 · 런던 · 로테르담 · 잔드보르트(F1) · 알메러 · 하이델베르크

2. 같은 축 1:1 대비표 — 베네룩스 패키지(물류 제약 우선) vs 내 FIT(설계 정밀)

FIT 전시물 §2와 동일한 8개 축. 각 칸 근거는 §1(패키지) / FIT 전시물 §1(내 FIT). **판정은 §3-A에 별도 정리.**

축	베네룩스 패키지	내 FIT
① **항공/교통 허브**	프랑크푸르트 직항 IN/OUT. 허브가 시작·끝 고정, 내부는 전용 대형버스 스윕	프랑크푸르트 직항 IN/OUT **완전 폐곡선** + 유레일/유로스타 1등석(승객=물류 설계자)
② **동선/백트래킹**	프랑크푸르트→쾰른→NL→BE→룩셈→프랑크푸르트 **사실상 스윕**(7박 중 6박 1박 홉). 암스 2박은 **밀도 강제 정지**지 설계된 적응형 허브가 아님(스포크는 잔세스칸스 30분 하나뿐)	백트래킹 회피(공통) + **적응형 이중 허브**(브뤼셀 3박·암스테르담 3박) + **베이스 재활용**(프랑크푸르트) + 밀도별 스윕↔허브 전환. 시내 단위도 폐루프
③ **체류 vs 경유**	대부분 1박 홉, 암스만 2박. **7박 중 6회 체크아웃.** 7일에 14스톱 = 도시당 평균 2.5~3.5h, 얕고 균일한 프레임(광장+랜드마크+이동)을 전 도시 반복	브뤼셀 3박·암스테르담 3박 허브 + 프랑크푸르트 재투숙. 경유도 **체험화**(자른뷔르크 산책·로테르담 1박 건축 세션). 짐 안 풂
④ **이동 강도**	버스 일 평균 **약 2.6h**(발칸 마라톤 아님). 단 **체류 대비 이동이 큼**(겐트 1h 구경 < 그날 이동 2h). 인솔자 고정 처리, 승객 결정권 없음	단거리 열차(22~70분) + **역산 라우팅**(3회) + **버퍼/스트레스 테스트**. 강도를 '앉기→걷기'로 재배치. 베이스 연박으로 짐 고정
⑤ **관람 vs 능동형**	거의 순수 관람, **보트 0**·능동형 0(NO선택관광). 운하도 육지 외관	거의 전부 see(정직 인정) + **상품화 불가 능동형 앵커 1개**(F1) + 브뤼허·겐트·암스 **보트 3개**(수동형이나 패키지엔 아예 없는 경험 밀도)
⑥ **식사·숙소 신호**	숙소: 전일정 4성이나 **대부분 공항 호텔**(스키폴×5·브뤼셀공항×4·쾰른은 뒤셀도르프 공항) + 조식 호텔식(범용 소규모 뷔페). 식사: 캐논 향토(홍합·비타발렌·슈바인학세)+**'미슐랭' 3코스(스타 아닌 가이드 등재 추정)**+석식 1회 중국식 안전판	숙소: 시내 도보권·디자인/부티크. 식사: **분위기 최적 매장 명시 선정**(Aux Armes 1921·Chez Léon 1893)+**시장 조식(몰입)**+리스크 매핑+빛/동선 통합. 캐논 향토도 다 포함
⑦ **포지셔닝·타겟**	5,399,000원/인 올인클루시브 · 인솔자 · 넓이+안심+편의. 대중 프리미엄. (**단일 상품** — 자기잠식 프레임 미적용)	상품 아님. 2인·사진 우선(빛 역설계) + 자동차 서브테마 · 깊이>넓이. **스코프가 다름 — 11박·영국·F1 포함**(§2-D)
⑧ **시간·빛**	**개념 부재.** 공항 호텔+고정 체크아웃+그룹 동시 이동이 새벽 독점·블루아워 체이닝·야경 복귀를 물리적으로 봉쇄. **서유럽 see 관광의 핵심 감각(시각)의 마스터 변수를 무시**	산출물(사진)에서 역설계. 블루아워 체이닝·새벽 독점·다회 촬영·**쾰른 A/B 조건분기**. 여정의 핵심 감각을 지배하는 단일 최강 시그니처

2-A. 겹치는 9개 도시 — 같은 도시, 다른 처리 (객관 대조의 핵심)

같은 도시를 두 설계가 어떻게 다르게 통과하는지. '격차' 열은 우열이 아니라 *어느 쪽이 더 깊게 설계했나*.

도시	패키지 처리	내 FIT 처리	격차
프랑크푸르트	IN/OUT 공항만 (관광 0 — 도착 즉시 버스로 쾰른행)	IN/OUT + 뢰머 야경·마인강·재투숙·카이저돔 종탑·마인타워 블루아워	**FIT** (패키지는 공항으로만 소비)
쾰른	1박(**뒤셀도르프 공항** 호텔), 아침 대성당·라인 외관	1박 + 야경(대성당·호엔촐레른·트라이앵글 **A/B 조건분기**) + 종탑·쾰슈	**FIT** (야경·조건분기·연박)
암스테르담	2박(**스키폴 공항**) + 잔세스칸스·반고흐·담광장 외관(보트 X)	3박(시내) + 잔세스칸스·반고흐·**F1**·**운하 야경 크루즈**·A'DAM 일몰·알메러	**FIT** (3박·시내·F1·보트·블루아워)

도시	패키지 처리	내 FIT 처리	격차
잔세스칸스	오전 방문(암스 2박서 30분)	오전 '서늘·한산·빛 최적' 배치(암스 허브)	근소 (둘 다 당일치기, FIT 빛 타이밍)
안트베르펜	경유 brief(중식·외관 대성당/루벤스)	체류 6.5h(대성당·**루벤스하우스**·MAS)	**FIT** (외관 vs 체류)
브뤼허	1박, **오후 도착·아침 출발** (피크 타임, 보트 X)	브뤼셀 허브서 **06:51 새벽 독점 루프·보트**·미켈란젤로·종탑·Rozenhoedkaai 2회	**FIT** (새벽 독점 = 구조적 차별)
겐트	~1h 경유(오전, 그라벤스틴·그라슬레이, 보트 X)	**야경 중심**(성 미카엘 다리 3회·**야간 보트**·미스틱 램·~21시 복귀)	**FIT** (한낮 1h vs 야경 심화)
브뤼셀	1박(공항), 오후 오줌싸개·그랑플라스	**3박 허브**(미디 5분) + **블루아워 체이닝**(석양→관람차→야경) + 당일치기 베이스	**FIT** (허브·블루아워)
룩셈부르크	저녁 도착·1박(키르히베르크 업무지구), 아돌프·노트르담	저녁 Constitution·아돌프·Corniche·Grund·블루아워	근소 (둘 다 저녁+숙박, FIT 빛)

> **읽는 법**: 9개 중 6개는 FIT가 명확히 더 깊고(빛·허브·체류·보트), 2개(잔세스칸스·룩셈부르크)는 활동이 비슷해 근소, 프랑크푸르트는 패키지가 관광을 아예 안 함. 그리고 **거의 모든 격차의 메커니즘이 동일하다 — 빛(시간대)·위상(베이스 허브)·경험 밀도(보트·물 위)**. 패키지는 전 도시에 "광장+랜드마크+외관+이동"을 균일하게 발라 도시별 강점을 못 살린다(부제의 '깊이' 주장과 배치).

2-B. 미술관 — 커버리지는 패키지, 깊이·테마는 FIT

"커버리지·거장 밀도 = 패키지 승"으로 뭉뚱그리면 **커버리지와 깊이를 섞는 오류**가 된다. 둘을 분리한다.

차원	패키지	내 FIT
커버리지(넓이·노출량)	**패키지 우위** — 3곳 내부(크뢸러뮐러·반고흐·마우리츠하위스), 반고흐 2컬렉션 + 페르메이르	2곳(반고흐 암스·내셔널 갤러리 런던)
깊이·테마·retention	**얕음** — 각 2~3h, 다른 스톱 사이 삽입, **연결 테마 없이 '유명 미술관 체크리스트'**. 반고흐 미술관은 그룹 입장 제약·관내 설명 불가	**FIT 우위** — **반고흐 cross-version 스레드**(런던 해바라기 ↔ 암스, 5점 중 2점)로 관통. 명시적 테마가 의미·기억을 만듦

→ **핵심**: 세계급 미술관을 몇 시간에 '보는' 건 불가능하다 — 양쪽 다 comprehensive 관람이 아니라 **샘플링**이다. 차이는 *테마의 유무*다. 패키지는 3곳을 테마 없이 샘플(노출량↑, 정합성↓), FIT는 2곳을 반고흐로 꿰어 retention을 만든다(노출량↓, 정합성↑). 인지적으로 스키마(테마)가 기억을 만든다는 근거가 이를 받친다. **정직 플로어**: 실제 3대 미술관 안에 서보는 masterwork *노출량*은 패키지가 많다(넓이). 그러나 내 목적(깊이·기억·사진)엔 테마 관통이 이긴다.

(부기) 날짜 락인 — 상품명이 내건 대표작이 이 출발분엔 부재. (모두 상품 페이지 고지)

미술관	방문일	대표작 상태
크뢸러뮐러	8/19	'밤의 카페 테라스' **일본 대여로 부재**(~2026.9 반환 예정)
마우리츠하위스	8/20	'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' **오사카 대여로 부재**(8/15~). 미술관 자체는 8/20 개관
반고흐 미술관	8/19	관람 가능. 단 그룹 입장 정책 강화로 라익스미술관 대체 가능성

→ 대여 고지는 정직하다(패키지 편). 그러나 여행자는 날짜·동선을 못 바꿔 **락인**된다. 내 FIT의 날짜 인지·A/B 조건분기가 이 종류의 락인을 사전에 잡는다. ※ 방법론 논점만 — 내 FIT는 그 두 미술관을 안 가므로 "내가 진주 소녀를 봤다"가 아니라 "이런 락인을 내 방법이 회피한다"로 쓴다.

2-C. 식사 — 캐논은 공통, 몰입·매장 큐레이션은 FIT (⑥ 재보정)

향토 캐논 요리를 패키지의 '큐레이션 증거'로 볼 수는 없고(양쪽 다 있는 기본값), FIT 식사의 진짜 엣지는 매장 선정·조식 몰입·빛·동선 통합에 있다.

요소	패키지	내 FIT	판정
향토 캐논(홍합·감자튀김·양조장맥주·비타발렌·슈바인학세)	포함	**포함**(안 먹으면 이상한 캐논)	**공통 — 차별 요소 아님**
매장 선정 근거	미공개(그냥 '현지식')	**명시·역사적**(Aux Armes 1921·Chez Léon 1893 등)	FIT — 증명 가능한 큐레이션은 FIT만
조식	전 일정 **호텔식**(어디나 동일한 소규모 뷔페)	**시장에서 사먹는 몰입형**	FIT (몰입 테마 정합)
'미슐랭 3코스'	**미쉐린 가이드 등재 추정**(스타 아님 — group 단가·1h 슬롯상 스타 불가)	분위기 최적 로컬 매장	**동급 티어 — prestige 차별 아님**
리스크·통합	—	호객집 회피·드레스코드·**빛/동선 통합**	FIT
안심 안전판	석식 1회 **중국식 옵션**	—	패키지(안심)

→ **정직**: 향토 캐논은 양쪽 다 있어 차별이 아니고(내가 여기서 과대평가했다), 'Michelin 레스토랑'도 group 단가·~1h 슬롯상 **미쉐린 가이드 등재**(등재/빕구르망 급)일 뿐 스타 파인다이닝이 아니다 — 하나투어 발칸 6개국도 '미슐랭 *등재*'였으니 관행이 일치한다(다만 페이지 문구상 추론). 즉 그 한 끼는 FIT의 분위기 매장과 **동급 티어**지 prestige 차별이 아니다. 조식도 어느 4성이나 똑같은 소규모 뷔페다. 그러니 FIT 식사 우위(**증명 가능한 매장 선정 + 시장 조식 몰입 + 빛/동선 통합**)는 그대로 서고, 패키지가 쥔 건 prestige가 아니라 **'전부 예약됨'이라는 편의 + 중국식 안전판**뿐이다. **트립 목적(몰입) 기준엔 식사도 FIT-leaning.**

2-D. 추가 축 — 비용 구조·스코프 (가격 '우열'은 비교 대상 아님)

가격으로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. 두 여정은 **비용 구조와 스코프가 달라** 같은 자로 잴 수 없기 때문이다.

항목	패키지	내 FIT
기간	7박 9일	**10박 11일**(더 깊)
스코프	베네룩스+독일	+ **영국(런던 당일)** + **F1 더치 GP 프리미엄 앵커**
가격에 묶인 것	항공·숙박·식사·입장·보험·**가이드·인솔·짐운반·리스크 이전** 올인클루시브	설계 자유(위 오버헤드를 지지 않는 대신, **설계 노동은 본인 부담**)

→ 핵심은 "누가 싸냐"가 아니다. 패키지 540만엔 **내 FIT가 지지 않는 오버헤드**(가이드·인솔·보험·짐운반·리스크 이전·45인승 버스 경제성)가 묶여 있고, FIT는 그 오버헤드를 버리는 대신 **설계 자유**를 얻는다. 즉 둘은 *다른 것을 최적화*한 결과라 가격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. 비교 가능한 사실은 **스코프**뿐이다 — FIT는 **11박(vs 7박) + 영국 + F1**

프리미엄 앵커를 담았고, 이는 패키지가 구조적으로 못 넣는다(삼각 트레이드오프 — 45인승 경제성이 커버리지·이동강도를 강제).

> **정직 각주**: 실제 개인 실지출은 학생 유레일 패스(만 26세 이하)·유리한 시점 선환전·아고다 상위등급 할인·얼리버드 등으로 더 낮았으나, **이는 재현 불가한 개인 차익이며 PM 설계 역량과 무관하므로 설계 논점에서 제외한다.** (재현 가능한 설계 결정과 개인 상황을 구분한다.)

---

3. 객관 평가 — 축별 우열 (정직하게)

3-A. 판정 요약

축	판정	핵심 근거	정직 보정 (내가 과장/과소했거나 패키지가 쥔 부분)
① **항공/교통 허브**	무승부 + FIT 미세 우위	둘 다 프랑크푸르트 IN/OUT	허브 선택은 **동일** — 우열 없음을 인정
② **동선/백트래킹**	**FIT 우위**	적응형 이중 허브+베이스 재활용	패키지는 **사실상 스윕 + 밀도 강제 정지 1회**. 단일 2박은 적응형 토폴로지가 아님
③ **체류 vs 경유**	**깊이 FIT / 넓이는 조건부**	3박 허브 vs 6회 체크아웃·14스톱	넓이는 *브레드스 원하는 여행자*에겐 패키지 승, *깊이·기억* 목적엔 14 얕은 스톱은 오히려 부채
④ **이동 강도**	**FIT 우위**	물류 통제·짐 고정·피로 재배치	절대치(2.6h/일)는 발칸 38h와 다름(유지). 단 **체류 대비 이동 비율**은 높음(배꼽>배)
⑤ **관람 vs 능동형**	**FIT 우위**	F1 앵커 + 보트 3개	둘 다 압도적 see, 보트는 수동형. 단 **패키지는 보트조차 0** → 경험 밀도 차
⑥ **식사·숙소 신호**	**숙소 FIT / 식사도 FIT-leaning**	시내·디자인 호텔 + 몰입 매장·시장 조식	향토 캐논은 **공통**. '미슐랭'은 스타 아닌 **가이드 등재 추정**(동급 티어). 패키지가 쥔 건 prestige 아닌 **편의(전부 예약)+중국식 안심**
⑦ **포지셔닝·타겟**	비교 아님(다른 목적함수)	넓이·안심·편의 vs 깊이·빛	단일 상품 — 자기잠식 프레임 미적용
⑧ **시간·빛**	**FIT 결정적 우위**	빛 역설계·블루아워·새벽·A/B	빛은 니치 축이 아니라 **시각 관광의 마스터 변수**(§3-B)
(미술관)	**커버리지 패키지 / 깊이·테마 FIT**	패키지 3곳 샘플 vs FIT 반고흐 관통	masterwork *노출량*은 패키지 많음(넓이). 목적엔 테마 관통이 이김
(비용·스코프)	**비교 아님 (다른 목적함수)**	스코프 차: 11박·영국·F1 vs 7박	가격 '우열'은 성립 안 함(비용 구조 다름·설계 노동 미반영). 개인 할인 차익은 설계 논점서 제외

3-B. 반드시 짚을 정직 보정 (면접 방탄)

② **사실상 스윕이다.** 한 번의 2박(암스)은 '순수 스윕 아님'을 만들지 않는다 — 7박 중 6박이 1박 홉이고, 암스 2박은 미술관 밀도 때문의 *강제 정지*지 설계된 허브가 아니다. 스포크 하나(잔세스칸스 30분)로 '적응형 토폴로지'라 부를 수 없다. 내 우위는 **적응형 이중 허브(브뤼셀·암스 각 3박)+베이스 재활용**이라는 설계된 위상 전환이고, 패키지엔 그게 없다.

③ **넓이는 조건부, 깊이는 명확히 FIT.** 7일 14스톱은 *브레드스*를 원하는 여행자에겐 강점이지만, **깊이·기억**을 원하면(=내 목적함수) 도시당 2.5~3.5h로 얕게 훑는 14스톱은 오히려 부채다 — 도시 이름도 안 남는다. 커버리지를 무조건 패키지 승으로 두면 안 된다.

④ **'버스 마라톤'은 금지, 대신 '체류 대비 이동'.** 절대치(2.6h/일)는 발칸(5h/일·38h+)과 다르므로 마라톤 프레임은 철회한다(안 그럼 반박당함). 대신 더 날카로운 지표: **체류 대비 이동 비율**이 높다 — 겐트 1h 구경 < 그날 이동 2h처럼 *배꼽이 배보다 큰* 스톱이 실재한다. 내 우위는 절대 시간이 아니라 **통제권+피로 재배치+짐 고정**(패키지는 6회 짐 쌈)이다.

⑤ **보트조차 0.** 보트는 수동형이라 '능동형 앵커'는 여전히 F1 하나뿐이다(정직). 단 이 패키지는 **보트마저 없어** 브뤼허·겐트·암스의 물 위 경험을 통째로 스킵한다 — 경험 밀도에선 명백한 차이다.

⑥ **향토 캐논은 공통, 우위는 몰입·매장·조식.** 홍합·비타발렌·슈바인학세는 안 먹으면 이상한 캐논이라 양쪽 다 있다(내가 이걸 패키지 큐레이션 증거로 과대평가했다). '미슐랭 레스토랑'도 group 단가·~1h 슬롯상 **미쉐린 가이드 등재**로 추정되지 스타 파인다이닝이 아니다(하나투어 발칸 6개국도 '미슐랭 등재'였음) — FIT 매장과 동급 티어라 prestige 차별이 아니다. 조식도 어느 4성이나 똑같은 소규모 뷔페다. 내 식사 우위는 **증명 가능한 분위기 매장 선정 + 시장 조식**

몰입 + 빛/동선 통합이고, 패키지가 쥔 건 prestige가 아니라 **'전부 예약됨' 편의 + 중국식 안심**뿐이다. 숙소는 명확히 FIT(패키지는 공항 호텔이라 "시내 호텔 1박"조차 얇은 주장이고, 이 공항 호텔이 ⑧ 빛 봉쇄의 물리적 증거다).

⑧ **빛은 니치가 아니라 마스터 변수.** 빛을 '8축 중 하나'로 취급해 "좁은 우위"로 보는 건 과소평가다. **서유럽 see 관광은 본질이 시각이고**(성당·건축·문화 전부 '보는 것'), 빛은 그 시각 품질을 결정하는 마스터 변수다. 시각 관광을 빛 무시하고 짠 스케줄은 여정의 핵심 감각 채널 자체를 최적화하지 않은 것 — **설계 진지함의 카테고리 차이**지 사소한 엣지가 아니다. 공항 호텔+고정 체크아웃+그룹 동시 이동이 새벽·블루아워·야경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그 증거다.

---

4. 런던 미니 구간 대비 (별도 — 이건 버스 패키지가 아님)

런던 단독 패키지나 '베네룩스+영국' 상품이 없어 부득이 떼온 대조군. **성격을 정직하게 명시한다: 이건 45인승 버스 일주가 아니라 가이드+본인수배 모델이다.**

항목	하나투어 런던 워킹투어	내 FIT 런던 당일
상품 성격	런던 1일 시내+대영박물관 **가이드 워킹투어**, 64,000원	브뤼셀 허브서 **유로스타 당일치기** (08:57~20:04)
물류	가이드 동행, 인솔자 없음, **왕복항공·숙박·도시간 이동·점심·입장료 대부분 본인 부담**(스톱 간 대중교통)	본인 설계(유로스타 1등석), 브뤼셀 베이스 유지
코스	타워브리지·빅벤·버킹엄·웨스트민스터 사원·대영박물관(6h, 16:00 종료)	웨스트민스터·내셔널 갤러리·**세인트폴 돔**·레든홀·가든앳120
큐레이션 논리	대표 명소 순회(commodity 랜드마크)	**commodity 거부·대체불가 선택** + 반고흐 cross-leg

평가: 이 워킹투어 코스(빅벤·버킹엄·대영박물관)는 내 FIT 세인트폴 돔 논증이 정확히 겨냥하는 **commodity(상품화된 흔한 경험)** 그 자체다. 즉 "유리 전망대 = commodity / 1710년 돔 = 대체불가" 문장이 이 상품에 그대로 얹힌다. **단정직하게**: 이 워킹투어는 물류상 오히려 FIT에 가깝다(본인이 항공·이동 다 수배, 현지 가이드만 6시간). 그러니 대비의 축은 '물류 자유도'가 아니라 **'큐레이션 깊이(commodity vs 대체불가)'** 하나로 좁혀서 읽어야 한다 — 억지 대비를 피하는 길이다. (참고로 런던 단독 상품은 '영국일주 9일'류 풀패키지만 있어 이 워킹투어가 당일치기 구간의 최근접 대조군이었다.)

---

5. 종합 — 이 대조가 FIT 전시물을 어떻게 보강하는가 + 한계

보강. FIT 전시물 §2는 "지역이 다르다"는 반박 여지가 있었다. 이 문서는 그걸 닫는다 — **같은 관문(프랑크푸르트 IN/OUT)·같은 계절(2026.8)·9개 공유 도시**로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내 설계 시그니처가 버틴다. 겹치는 9개 도시에서 격차의 메커니즘이 반복적으로 **빛·위상·경험 밀도**로 수렴하고(§2-A), 패키지의 구조적 제약(공항 호텔·그룹 물류·1박 홉·보트 0·날짜 락인)이 *실제 상품 페이지*에서 문서로 확인된다.

핵심 종합 (재보정) — 하나의 설계 철학이 물류와 콘텐츠를 모두 관통한다.
"콘텐츠는 양쪽 다 큐레이션, FIT 우위는 물류·빛 층뿐"이라고 보면 **커버리지와 깊이를 뭉갠 과보정**이 된다. 정확히 보정한다:

- 같은 설계 철학 — **의도적 깊이 · 명시적 테마 · 감각(빛) 최적화 · 깊이>넓이** — 이 물류 층(적응형 토폴로지→빛)뿐 아니라 **콘텐츠 층까지 관통**한다: 미술관은 반고흐 cross-version 스레드로 관통(패키지는 3곳 체크리스트), 미식은 분위기 최적 매장+시장 조식으로 몰입(패키지는 캐논+미슐랭+호텔 조식), 경험은 보트·물 위·새벽·야경으로 밀도(패키지는 육지 외관·보트 0).
- 특히 **빛은 니치 축이 아니다.** 서유럽 see 관광의 본질이 시각이고 빛은 그 시각 품질의 마스터 변수다. 시각 관광을 빛 무시하고 짠 스케줄은 핵심 감각 채널 자체를 최적화하지 않은 것 — 설계 진지함의 카테고리 차이.
- 그러므로 FIT의 우위는 "물류/빛 뿐"이 아니라, **깊이·기억·테마 정합이라는 여정의 질을 결정하는 축 전반**이다. 게다가 더 긴 스코프(11박·영국·F1)를 담았다(§2-D — 단 가격 우열은 비교 대상이 아님).

정직 플로어 — 패키지가 진짜 쥔 것 (콘텐츠 깊이 아님).
그럼에도 패키지는 지울 수 없는 카드를 쥔다 — (1) **넓이**(더 많은 스톱·미술관: '많이 봤다'를 원하는 여행자용), (2) **올인클루시브 편의·리스크 이전·제로 설계노동 + 짐 운반**(시간 없는·리스크 회피 여행자에겐 결정적 — 딸깍 구매로 다 해결. 나는 짐 때문에 숙소를 전부 역 근처로 배치하고 미리 예약해야 했다), (3) **안심**(가이드·보험·4성·중국식 옵션), (4)

N명 반복 판매 실상품 vs 내 N=1. (※ 미식 prestige는 카드에서 뺀다 — 그 '미슐랭'은 스타가 아니라 가이드 등재로 추정되어 FIT 매장과 동급 티어다.) 이건 콘텐츠 깊이가 아니라 **넓이+편의+안심**이라는 다른 목적함수다. 내 FIT는 "더 나은 상품"이 아니라 **"더 깊은 설계 철학"**이며, 이걸 0으로 지우면 문서가 hype가 되고 면접에서 박살난다.

한계 (반드시 병기).

1. **겹치지 않는 구간**: 패키지만 6개(아른헴·위트레흐트·델프트·헤이그·디낭·코헴), 내 FIT만 6개(자른뷔르크·런던·로테르담·잔드보르트·알메러·하이델베르크)는 대조 밖이다. *교집합*의 이야기지 전체가 아니다.
2. **N=1 개인 여행 vs 실판매 상품**: 패키지는 넓이·편의·안심·반복판매성이라는 **다른 목적함수**를 실행한 상품이다. "더 나은 상품"이 아니라 "다른 설계 철학"이다.
3. **정직 보정**: 이 패키지 버스는 발칸 마라톤과 다르고(~2.6h/일), '사실상 스윕'이며, 미술관 *노출량*·편의·안심은 패키지가 쥔다. 발칸 프레임·hype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.
4. **가격은 비교에서 제외**: 두 여정은 비용 구조·스코프가 달라(패키지는 가이드·보험·짐운반·리스크 이전 올인클루시브, FIT는 설계 노동 본인 부담) 가격 우열이 성립하지 않는다. 개인 할인 차익도 재현 불가라 설계 논점에서 뺀다. 비교 가능한 건 스코프(11박·영국·F1)뿐이다.

> **다시, 프레이밍**: 증명하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**설계 사고방식**이며, 그 철학은 물류와 콘텐츠를 모두 관통한다. 그럼에도 패키지의 넓이·편의·안심은 인정한다. 인과 주장은 하지 않는다. 이 문서는 발칸 전시물과 합치지 않는 **연결된 별도 보조 자료(B급)**이며, 무게를 과장하지 않는다.

부록 A. 출처·캡처 메모

- **패키지 측(본 대조의 좌열)**: 하나투어 공개 상품페이지 `베네룩스 3국+독일 9일` (상품코드 EWP104260817OZ1). 고해상 캡처 3매 + 페이지 PDF에서 전 구간(1~9일차)·전 호텔·전 식사·미식 구성(미슐랭+향토)·미술관 대여 고지·포함/불포함/선택경비·이동시간·미팅정보·보트/능동형 부재를 손실 없이 추출. 원본 2026.07.01 캡처, 공개 일정표 기준("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" 명시). 저해상 최초 캡처는 고해상 재캡처본으로 대체·검증.
- **런던 미니 구간**: 하나투어 `런던 1일 시내+대영박물관 가이드 워킹투어` (64,000원, 2026.07.07). 가이드 동행·인솔자 없음·항공/숙박/이동/점심/입장료 대부분 본인수배. 코스 캡처 재확인(타워브리지·빅벤·버킹엄·웨스트민스터 사원·대영박물관, 16:00 종료, 스톱 간 대중교통).
- **비용·스코프**: 패키지 5,399,000원/인(올인클루시브)은 상품페이지 기준. 내 FIT는 **가격 우열 비교에서 제외**한다 — 비용 구조가 다르고(패키지는 가이드·보험·짐운반·리스크 이전 포함), 개인 실지출은 학생 패스·선환율·얼리버드 등 재현 불가한 개인 차익이 섞여 설계 논점과 무관하기 때문(§2-D 정직 각주). 비교는 스코프(11박·영국·F1)로만.
- **FIT 측**: `유럽FIT_설계전시물.md` 및 그 근거인 도시별 가이드 12건과 1:1 대조.
- **추출 방식**: 이미지 픽셀 검증(PIL) → Lanczos 업스케일 → 전처리(그레이스케일·오토콘트라스트·언샤프) → tesseract kor+eng OCR. (AI 자동 해시태그는 캡처 저해상으로 신뢰 추출 불가 → 오차 방지 위해 제목의 확정 테마태그만 채택.)

부록 B. 용어

- **FIT**(Free Independent Tour) = 개별자유여행(패키지 반대 개념)
- **토폴로지** = 동선의 위상·구조 형태 / **스윕**(sweep) = 점들을 한 방향으로 훑는 선형 동선 / **허브앤스포크**(hub-and-spoke) = 거점 연박 + 방사형 당일왕복 / **적응형 토폴로지** = 밀도별로 스윕↔허브를 갈아끼우는 설계(단발 정지와 구분)
- **폐곡선**(closed loop) = 시작점 = 종착점인 닫힌 동선 / **베이스 재활용** = 첫·끝 숙소를 같은 곳으로 재투숙
- **블루아워** = 일몰 직후 하늘이 짙은 파랑이 되는 사진 최적 시간대 / **블루아워 체이닝** = 한 저녁에 석양→일몰→야경을 장소를 옮겨가며 연속 촬영

- **새벽 독점** = 개장·인파 전 시간대를 선점해 한산한 컷·동선을 확보 / **조건분기** = 외부 변수에 따라 미리 둘 이상의 시나리오를 짜두는 설계(예: 쾰른 A/B)
- **역산 라우팅** = 고정 종점(귀국편 등)에서 거꾸로 출발 시각을 계산 / **버퍼/스트레스 테스트** = 워스트케이스·피로 시나리오를 별도로 짜 지연을 흡수
- **마스터 변수** = 한 결과(여기선 시각 품질)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단일 변수(여기선 빛)
- **커버리지(넓이) ↔ 깊이** = 많이 보기 vs 깊이 보기 / **retention** = 여행 후 기억에 남는 정도 / **샘플링** = 대상을 다 보지 않고 일부만 훑음
- **commodity**(상품화된 흔한 경험) ↔ **대체불가**(irreplaceable) / **cross-leg** = 구간을 가로질러 같은 작가의 다른 버전을 의도 배치
- **prestige** = 격식·권위에서 오는 값(예: 미슐랭 스타 — 본 패키지엔 없음, 가이드 등재만 추정) / **올인클루시브** = 항공·숙박·식사·이동·입장료를 하나로 묶어 파는 방식(편의·안심 신호) / **리스크 이전** = 여행자가 질 위험(예약 실패·현지 사고 대응)을 상품사가 대신 지는 것
- **목적함수** = 설계가 최적화하려는 목표(넓이·안심·편의 vs 깊이·빛·몰입) / **N=1** = 표본이 하나인 사적 사례
- **moules-frites**(홍합+감자튀김) = 벨기에 대표 요리 / **비타발렌**(bitterballen) = 네덜란드식 크로켓 튀김 안주 / **슈바인학세**(schweinshaxe) = 독일식 돼지 정강이 구이 / **캐논**(canon) = 그 지역에서 안 먹으면 이상할 만큼 대표적인 요리군